

## 9/30(수) 시편 묵상 27

### 시편 87:1-7

시편 87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온을 중심으로 이제 온 열방으로 성취되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하나님의 장자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 분이 이스라엘의 어느 곳보다도 시온의 문을 더 사랑하신다고 고백합니다(1-2절,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데도다.”). 여기서 ‘시온의 문’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과거에 ‘성문’이 그 사회와 경제 생활의 중심지였던 것처럼 ‘시온의 문’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터전인 ‘예루살렘 성’을 향한 3절의 고백은 순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으로 여겨집니다(“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으로 시편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시 122:2; 137:5-6; 애 1:18-22; 사 62:1-9).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만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출 4:22,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는 장자인 이스라엘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출 19:5-6,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택하신 목적이었습니다.

#### 하나님의 가족

시인은 이스라엘에 이어 4절에서 다섯 나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신탁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4절,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서 다섯 나라는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입니다. 그 중 ‘라합’은 ‘이집트’를 가리키는 것(사 30:7,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얹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이고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는 것은 ‘안다’는 원어적으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즉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났다’는 것은 ‘시민권을 받았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비록 시온 밖에서 출생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택하심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엡 3:6,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마지막으로 이 시의 5-6절은 위의 다섯 나라를 넘어 많은 사람과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5-6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 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뜻하고 그들이 6절에서는 ‘모든 민족들’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모든 민족들’은 이 세상 모든 이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신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 받은 택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시온이 많은 자녀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말씀과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사 54:1,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시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유일한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주변 다섯 개 국가로 확장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과 세계 모든 민족에게로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준

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은 구약의 요엘서의 예언과 신약의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을 2:32,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와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와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이었고 이방인이었던 우리까지도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엡 2: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롬 8:14-17,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이제 아들로서의 특권이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하나님은 시온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며(고전 3:16) 우리의 예배를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특권만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책임도 함께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며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벧전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통해 아직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주의 복음대로 살며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2. 우리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박재덕<탄자니아>, 박종국<에티오피아>, 양광균<가나> 선교사님의 가정과 현지 사역지의 건강과 필요 그리고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3.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영적인 강건함과 더불어 육적인 필요로 채워주시옵소서